

<2013년 5월 1일 수요일말씀>

휴거되려면 네 가지를 갖추어라

본 문 에스겔 18장 20절

마태복음 16장 16-20절, 22장 37절, 24장 29-31절

고린도전서 15장 51-52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구원만 하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인간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조 목적>은 인간의 ‘육’은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땅에서 살 동안 삼위를 사랑하며 살고, 그에 따라 ‘영’을 ‘하늘나라 신부의 영’으로 변화시켜 성자를 맞고 휴거되어 천국에 가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창조 목적 때문에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한 신입 교인이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기성 교회에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믿어도 영광 돌릴 것이 별로 없어서 신앙이 막연했습니다. 섭리사에 와서 근본 목적을 배우니,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는 목적이 인간의 육도 영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같이 너무 좋

아요. 근본 목적을 알고,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사랑하니까
무한하게 사랑하며 신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또 하나님과 성령
님과 성자 주님께 무한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아요.” 했습
니다.

오늘은 육도 영도 진정 휴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대 배우고
행할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육은 땅에서 휴거되고, 영은 땅에서 육신의 행위로 인해서 완전한 휴
거의 영으로 변화되다가 성자를 맞고 휴거되어 천국에 갑니다. 지금 육
휴거와 영 휴거가 진행 중입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하여 육도 영도 휴거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험문제의 답을 모르면, 시간이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던
사람도 답을 알려 주면 즉시 문제를 푹니다. 알려 주는 것은 성자와 분체
의 책임이니, 알려 주면 행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핵심을 말씀할 테니 생활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할 때 작은 가지들은 더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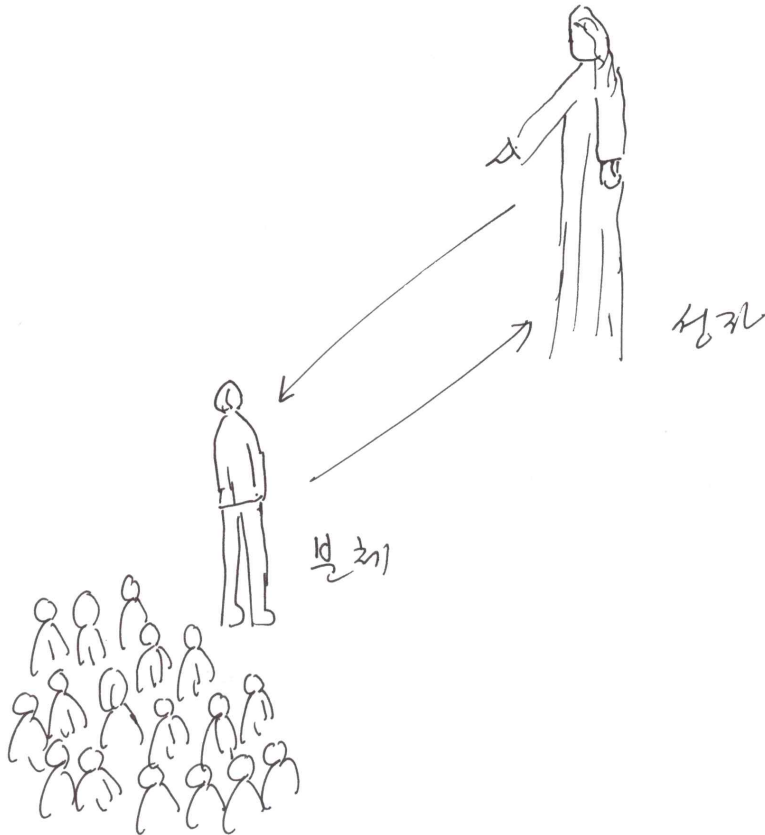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육과 영이 휴거되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성경에 약속된 때가 되어 인간의 육과 영을 휴거시키려고 하늘에서 전
능하신 성자가 다시 오셨습니다. 성자는 영체이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
간과 안 통합니다. 고로 자기 몸같이 쓸 자를 택하여 분체로 삼으시고 나
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체가 바로 성자의 말씀대로 행할 땅의 구원

자입니다. 고로 휴거되려면 첫째, 재림하신 성자와 그가 보낸 자 분체를 100%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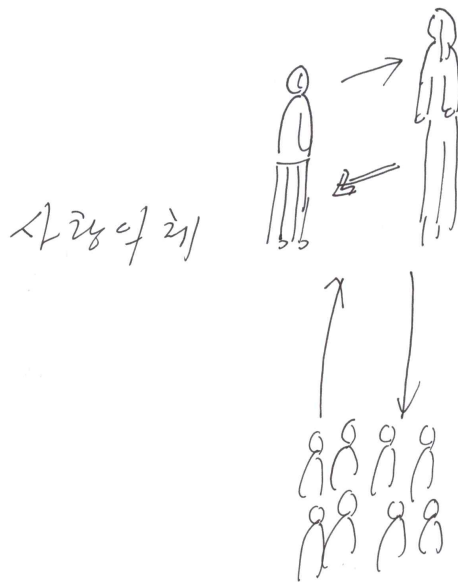


성자는 자신의 분체를 통해서 성자의 재림을 알려 주시고, 말씀과 계시와 여러 가지로 분체가 누구인지 알려 주십니다. “너희를 구원하러 보냈다.” 하고 영적으로도 알려 주시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성자가 계시를 주며 알려 주시고, 분체를 통해서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십니다. 고로 ‘성자와 분체’를 100% 정확히 알고 믿어야 육도 영도 휴거됩니다. (아멘.)

(* 육과 영이 휴거되려면, 두 번째로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휴거되려면 둘째, 성자와 분체를 절대 사랑해야 됩니다. 100% 사랑입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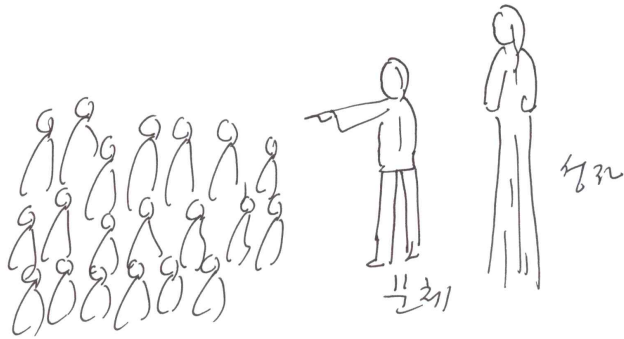
신앙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도 늘 성경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성자와 그 분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휴거됩니다. 그러니 성자와 분체를 절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육도 영도 휴거되지 않습니다. ‘구원자 절대 사랑’이 영원히 같이 살 ‘전능하신 성자 절대 사랑’입니다.

성자 분체는 육을 가진 세상 사람이지만, 성자의 몸으로서 구원자로 쓰입니다. 성자는 분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분체는 성자와 일체 된 자입니다. 고로 ‘절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고 몸은 사랑으로 타락되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자기 식대로 사랑하면, 휴거 자격이 상실됩니다.

(* 육과 영이 휴거되려면, 세 번째로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휴거되려면 셋째, 성자께서 분체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100% 믿고 따르고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



‘말씀’ 으로 자기 마음을 만들고, 그 만든 마음을 가지고 육으로 행하고, 그 육의 행실로 자기 혼과 영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킵니다.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을 자기가 듣고 행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끝>

말씀을 들어야 ‘성자’ 도 알게 되고, ‘분체’ 도 확실히 알게 되고, ‘죄’ 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의’ 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창조 목적’ 도 알게 되고, ‘삼위의 사랑’ 도 알게 되고, ‘휴거의 때’ 도 알게 되고, ‘어떻게 휴거되는지’ 도 알게 되고, ‘자기 영이 휴거되어 갈 곳’ 도 알게 됩니다.

다른 말씀은 휴거되는 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자께서 재림과 휴거 때에 맞게 시대 분체를 통해서 새로 주시는 ‘성약 말씀’ 이어야 됩니다. 성자께서 분체를 통해서 ‘성약 말씀’ 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육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땅에서 육이 분체를 통해서 성자를 맞고 사랑의 신부가 되어서 땅에서 휴거된 자로서 살아갑니다. 육이 행하니, 마음도 생각도 혼도 영도 변화되고, 영은 온전한 휴거의 영이 되어서 천사장이 나팔 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성자 본체가 오시면, 영이 성자를 맞고 휴거되어 천국에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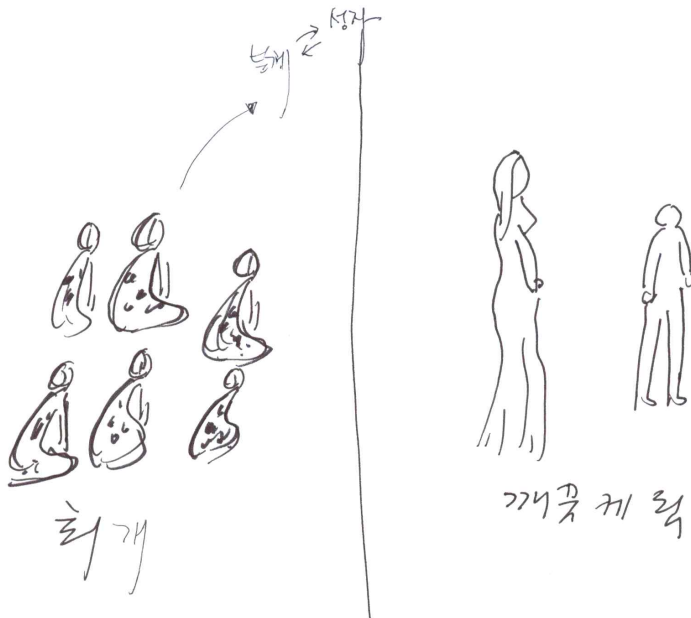
이 시대에 성자가 분체를 통해서 주시는 ‘성약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키고서는 육도 영도 휴거되지 않습니다. ‘시대 말씀’이 그리도 귀합니다. 새벽 잠언, 주일말씀, 수요일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 온 인류를 두고 성자께서 하시는 구원의 말씀, 성약의 말씀, 휴거의 말씀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구원을 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 때>는 하나님과 성자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해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자의 약속을 이루는 <성약 때>는 하나님과 성자께서 이 시대 분체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창조 목적을 이루고 구원을 받습니다.

(* 육과 영이 휴거되려면, 네 번째로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휴거되려면 넷째,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낱알이 회개하여 성자에게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 합니다. <끝>



어느 누구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고로 꼭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자에게 자기 죄를 고하며 회개해도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용서받았다.” 하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다고 회개된 것도 아니고, 감동받았다고 다 회개된 것도 아니고, 3일, 7일, 10일, 21일, 40일 금식하고 조건 세웠다고 자기 죄가 영원히 사함 받고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는 것, 감동받는 것, 금식하는 것은 죄 사함의 표준이 아닙니다.

고로 성자는 자기 육으로 쓰는 분체 구원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어, 완전히 회개되었는지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분체에게 죄를 고백만 했다고 해서 용서받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자 분체가 누구인지 100% 제대로 알고, 그를 통해 죄를 낱알이 고하여 성자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자 분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회개하면, 육적으로 도움만 받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로 휴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둘째, 본인이 진정 회개될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셋째,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지 말고 낱알이 고백해야 됩니다.

넷째, 온전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어도 조건을 세우고 탕감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 타락 죄, 술 담배를 한 것,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등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은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성 죄는 숨기고 또 숨기려 합니다.

자기가 말을 안 해도 성자는 다 아십니다. 절대자 전능자 신이니, 사람이 죄를 숨기고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서 다 보시니 다 아십니다.

그러나 성자 분체는 절대자 신이 아닌 사람이니, 이야기를 안 하면 모릅니다. 고로 사람들은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것들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서 용서를 안 해 주면, 그 영은 영원히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성자에게 회개했으면 됐지...’ 하고 말 안 하는 자는 주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분체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자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분체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알기 위해 계속 그것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분체가 섭리사 전체 각 개인이 죄지은 것을 다 알아보려고 기도하다 보면, 평생 그것만 해도 못다 합니다.

분체는 성자의 육입니다. 고로 분체에게 말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면, 죄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고로 아쉬운 것 없이 본인이 죄를 고할 때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끝까지 죄를 고하지 않으면, 계속 짓값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성자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땅에서 안 풀면, 하늘에서도 안 풀어 줍니다. 전능하신 하늘의 성자가 땅의 육신으로 삼은 분체를 통해서 행하시니, 그에게 100% 죄를 고해야 됩니다. 분체에게 100% 죄를 고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한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만일 분체에게 죄를 고한다 해도 분체를 제대로 모르고 고하면, 죄 사

함을 받지 못합니다. 분체가 자기의 구원자인지, 성자의 육인지 100% 온전히 알고 죄를 고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자께서’ 육의 것도 영의 것도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십니다.

성자는 분체를 쓰고 죄 고백을 받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신약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자가 몸으로 쓰는 자는 성자 분체로서 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로 안 믿고 그냥 목사나 아저씨로 보고 죄를 고하면, 세상 누구에게든지 자기 죄를 고하면 육도 영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오직 성자의 몸을 통해 고하여 성자에게 사함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자와 그 보낸 자 분체를 100% 온전히 알고 믿어야 육도 영도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깨달았습니까? 왜 자기는 휴거되지 못하는지, 진정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오기를 “저는 10년 동안 섭리사에서 살면서, 그냥 선생님이 좋아서 따라온 것입니다. 성자가 함께해서 저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은 안 믿었습니다.”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성자에게 물으니, 성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죄지은 것을 내게 모두 고하며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었더라도 그저 사회 사람들이 서로 죄짓고 인성으로 용서해 준 정도에 불과하다. 너를 한 형제로만 봤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그가 죄지은 것이 천국에서 볼 때는 용서가 안 되었습니까?” 했습니다.

이에 성자 주님은 “나 성자가 분체를 나의 육으로 삼고 땅의 구원자로 보냈다는 것을 안 믿는 자는 나 성자를 안 믿는 자와 같다. 고로 죄를 고했어도 용서가 되지 않았다. 그 영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휴거가 힘들다. 하나님과 나 성자 앞에 죄를 지어 놓고, 일반 사람들에게 죄

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용서가 되겠느냐. 자기끼리 서로 용서하는 정도지. 성자가 보냈다는 것을 모르면 나 성자가 그 육을 통해서 나타났으나 주로 안 믿은 고로 구원도 없다. 다만 육이 그 행위대로 잠깐 기쁘고 즐거웠을 뿐이다.” 하셨습니다.

성자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성자의 말씀 그대로 써서 답장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 이같이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모두 깨닫고 알라고, 오늘 밤 ‘성자와 분체’에 대해 핵심을 말해 주며, 휴거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것은 하나의 육에 속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육도 영도 완전히 용서받으려면, 성자가 쓰시는 자가 ‘죄를 사할 권세자’라는 것과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죄를 고하며 진정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완전히 사해 줍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도 영적으로도 기록이 없어져 깨끗하게 죄가 사해집니다.

누구든지 저마다 정말 깨끗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살려면, 죄를 무섭게 회개해야 됩니다.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와 분체를 알고도,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와 분체를 사랑하고도 죄를 깨끗이 회개하지 않으면 휴거되지 않습니다.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 분체를 진정 사랑하여 우리 육도 영도 ‘성자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로 사랑 앞에는 회개가 필수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대상이 되려면, 갖추 것을 필수 조건으로 갖추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려면,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필수 조건으로
 갖춰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영’ 이 휴거되려면, 절대 갖출 것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밤에 말씀해 준 ‘네 가지’ 를 안 갖추면 단 한 명도 휴거
되지 않고, 갖추면 모두 다 휴거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죄가 있으면, 사탄이 그 ‘영’ 을 꼭 잡고 사망의 줄에 꿰뚫 묶어 놓
습니다. 고로 그 ‘육’ 도 ‘마음’ 도 사망권에서 살게 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하는 그 영
혼은 죽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죄 한 영혼이 죽었다’ 는 것은
‘범죄 한 영혼은 사망권에 묶여 있다’ 는 것입니다. <끝>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수백 군데에 죄의 대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뿐 아니라 그 주관권에 있는 자들은 구약 4000년 동안 다 죽어 있었습니다. 곧 그 영이 사망권에 묶여 있었습니다. 신약의 때가 되어 예수님이 성자의 몸으로 나타나신 후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랑하며 따라오는 자들만 살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100% 죄를 회개하는 자들만 살았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예수님은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고, 죄 때문에 자기 영이 지옥에 가고, 죄 때문에 의인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 죄를 다 고백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가 놔두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 하셨습니다. <끝>

섭리인들에게도 진실로 말하노니, 정말 자기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청소하듯이, 매일 이를 닦고 씻듯이, 매일 먹고 옷을 입고 활동하듯이,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다 하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휴거가 안 되면 너무 억울합니다.

지옥은 왜 가겠습니까? ‘죄’ 때문에 갑니다. 못 배워서,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가난해서, 좋은 옷을 못 입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 주를 알고 회개해야 ‘영’이 사망권에서 나와서 그 ‘육’도 사망권의 삶을 면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죄를 안 짓도록 대개 어느 때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섭리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짓수가 많지만, 그중의 한 가지만 말해 주겠습니다. 알고 죄를 안 지으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성자 주님도, 선생님도, 어떤 목사님이나 지도자도, 형제들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사랑의 상대를 찾아서 사랑 쾌락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또 술을 마시면서 위로받고, 담배를 피우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섭리사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며 풀면서 위로받았어요. 그러다가 클럽에도 가서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이성을 만나며 풀었어요. 위로받느라고 죄를 지었어요.” 했습니다. <끝>

힘든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행한 일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성자가 보다 보다 그 꼴을 더는 못 보시고, 성자께서 분체에게 다 밝히셨습니다. 그들이 분체도, 사명자들도 계속해서 속이니까 성자가 분노하여 숨긴 것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 그룹에는 목사도 있습니다. 모두 여자들입니다.

청년부 지도자 중에서도 있고, 대학부 지도자 중에서도 있고, 예술단 지도자 중에서도 있습니다. 4~5년 동안 계속해서 같이 만나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성을 만나서 계속해서 여러 번 타락하고, 그러면서 섭리사에

서 생명을 관리하는 사명을 했습니다. 때로는 단상에서 강의도 하고, 증거도 했습니다.

성자는 분체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을 모두 내려놓게 하고, 진정 회개하여 평신도로서 7년 동안 조건을 세워 올라오게 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자께는 말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분체에게나 형제에게 말하면 자기 직위가 해제되고, 섭리사와 연결하여 경제 활동을 하던 것도 못 하게 되고, 선교비도 못 받게 되니 그동안 말을 안 하고 4~5년을 계속해서 속여 온 것입니다. 그러다 때가 되니 성자가 회개시키려고 밝히셨습니다. 고로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섭리사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자들이 또 있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자께서 결국 다 밝히십니다.

죄를 짓고 숨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영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안 하면 자기 영이 사망에서 사니, 절대 휴거가 안 됩니다. 또 자기 영이 사망에서 늦게 나오니, 결국 그 사고가 사망권의 사고로 더욱 굳어지고 변해서 평소에 또 죄를 짓게 되고, 늘 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죄의 강도에 따라서 자기뿐 아니라 그 가정까지, 교회까지, 섭리사까지 모두 형벌을 받습니다. 고로 죄를 지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4~5년 동안 묻어 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만큼 죄가 커지니 ‘대가’도 크게 받게 되고, ‘조건’도 크게 세워야 됩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고 구원하기 위해 성자가 분체를 통해서 오셨으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두렵다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는 사탄의 마음을 받은 자로서 자기 영을 죽이는 자요, 자기 육신을 더욱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성자는 계속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섭리인들은 낱알이 100%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분체를 알고 고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 해를 넘기지 말고 꼭 회개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집회를 통해서 그렇게도 외쳤습니다. 그런데 4~5년씩 계속 술 담배를 하고 이성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섭리 전체에 해가 되었고, 그 죄값으로 인해 분체도 더욱 고통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부활과 독립의 해가 되었기에 분체가 죄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은 휴거되려면, 네 가지를 꼭 갖추라고 말씀했습니다.
핵심 네 가지를 다 같이 말해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첫째, 성자와 분체를 절대 100% 알아야 휴거된다.

둘째, 성자와 분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온전한 사랑을 해야 휴거된다.

셋째, 성자와 분체를 100%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절대 알고 행해야 휴거된다.

넷째, 성자 분체를 제대로 알고, 100% 죄를 고하여 죄 사함 받고
조건을 세우고 형벌 기간이 끝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100% 완전해야 휴거된다.

<끝>

회개는 술, 담배, 이성 죄뿐만 아니라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것들까지
다 개인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자 주님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니, 꼭 생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휴거’를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